

명·낙 ‘원팀’ 회동... “함께 손잡고 정권 재창출”

이재명, 이번주 지사직 사퇴·대통령 회동 등 본격 대선 행보
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가속화 ... 이낙연 상임고문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만나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앞서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정권재창출의 전선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나 원팀으로 대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동 시작 무리 줄이려 인사말을 꺼내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면서 “당원과 지지자께서는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말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당 지도자들이 앞서서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뿐 아니고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제가 부족한 부분을 대표로부터 채우고 수시로 조언을 얻고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국가와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같은 DNA를 가진 팀원”이라며 “이 전 대표가 품어 넓게 모든 길을 수용해 주시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일을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로 회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선대위 참여 방안도 참모 간의 논의를 통해 모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도 선대위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대위에 후보 직속의 제1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당이 굳건한 원팀으로 서기에 일정 정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이 전 대표가 정권재창출의 전선에 헌신하는 한편, 이 후보도 선대위에 이 전 대표 캠프 인사를 대거 포함시키는 등 보다 폭 넓은 통합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이 전 대표에 이어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과도 각각 회동할 예정이다. 또 25일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한 뒤, 26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해외순방(28일 출발) 전에 회동할 예정이다. 여러 일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과의 회동은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당·정 화합을 부각, 아직까지 이 후보에 미온적인 친문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11월 5일 이전에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선대위에 최대한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정을 챙기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민생 현장 행보도 강화한다. 정책적으로는 여의도와의 접촉면을 넓혀 입법, 예산 등에서 ‘이재명표 정책’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앞길에는 예측불허의 변수가 적지 않다. 대장동 의혹을 국감으로 상당 부분 털어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이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권재창출보다는 정권교체에 민심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 후보로서는 30%대 초·중반의 지지율을 40%대로 끌어올리는 게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층과 2030세대, 여성층 등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는 원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에서 회동,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찬양’ ‘개 사과’ ... “광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민주당 “전 국민에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 사진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3면〉 김진욱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는 어제 경선토론회에서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사과는 불성실하고 부족하다”며 “부인 김건희 씨에게 논란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두환 옹호는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피로 물든 철권통치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며, 윤 후보는 전 국민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초보 딱지 붙이고 과속 운전하는 윤 후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돌파 방식으로는 더는 망언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세력 불리기에 이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애잔하다. 검찰 총장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한 ‘1일 1거짓말’ 윤석열 후보 입부터 어떻게 해보시죠”라며 “윤 후보는 사과 좋아하니 귀농하시라고 권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국감장에서 유포한 김용환 의원 징계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아울러 이 조작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수사

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을 내 부장계라고 주장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 조롱과 거짓 해명만 일삼는 윤석열 후보를 억지 옹호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런 억지옹호가 아니라 자당 후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오만방자한 윤 후보의 전두환 칭송 망언과 개 사과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 앞에 솔직한 반성과 사죄를 드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산수2등 주민들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6면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4강 팀 확정 ▶18면

도시를 빛낸 예술가 공간 - 오스트리아 빈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1 도약 “馬”하고 南道가자”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

2021. 10. 26. | 화 | ~ 10. 28. | 목 |

국립나주박물관 및 전라남도 일원
마한정상회담 및 개막식 : 10. 26.(화) 14:00

주요 행사
- 마한 영산강 뱃길 재현 및 정상회담
- 개막식(대선과제 공동건의)

부대 행사
- 특별전 : 금은보다 귀한 옥
- 마한 영산강길 자전거 대행진
- 마한역사 유적답사
- 마한 상암미술대회
- 뿌리깊은 마한강연
- 마한 문화행렬 및 마한 이야기 웹툰전시

주최 전남남도 국립나주박물관 / 주관 전남남도 문화재단

오름전남튜브 LIVE
※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